

파견기간	<b>2024.8.12~2025.1.7</b>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b>2022-15242</b>
파견국가	미국		소 속	재료공학부
파견대학	<b>University of Arizona</b>		성 명	이예준
아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b>2025년 2월 22일</b>			
지원자	이예준			

##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2024년 2학기에 저는 제 대학 생활, 혹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University of Arizona(UoA)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 학기 간 생활하였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 지낸 저로서, 넓은 땅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은 제 삶의 견문을 넓히기에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의 삶은 제 인생의 관점을 글로벌하게 넓혀주었습니다.

##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제가 미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영어에 능숙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태껏 영어를 학문적으로만 바라보았고, 영어를 숙달하기보다는 단지 공부하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어를 단순한 학문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체득하고 싶었습니다.

애리조나주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곳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애리조나의 날씨는 대부분 따뜻하고 맑은 하늘이 특징입니다. 물론 가을 9~10월에도 기온이 40도 이상 오르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과 다르게 습하지 않아 체감되는 더위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땀도 많이 나지 않고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지기 때문이죠. 건조하고 맑은 날씨는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고, 이런 날씨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합니다, 기본적으로 애리조나주는 사막 기후에 해당됩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엄청난 크기의 선인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낮과 시원한 밤 공기는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는 스포츠가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NBA의 Phoenix Suns와 MLB의 Arizona Diamondbacks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팀들입니다. 프로 스포츠가 활발한 만큼, 지역 사회에서 스포츠는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에서의 경험은 프로 스포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학 스포츠 시스템은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제가 파견되었던 학교는 농구가 매우 유명했으며, 실제 NBA 선수들을 여럿 배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가까워졌고,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즐기며 더욱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우선 저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입니다. 때문에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혹여나 저처럼 이중국적자가 교환학생으로서 미국을 갈 생각이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여권을 출국 전 여유롭게 갱신해놓는 것입니다. 여권이 두 개라 출입국 시 어떤 여권을 내야 할 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 나라에 맞는 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국행 비행기를 타 미국으로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 출국 절차를 밟을 때는 한국 여권, 미국에서 입국 절차를 밟을 때는 미국 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여행을 다닐 때는 간단하게 미국 여권을 사용합니다.

UoA의 경우, 한학기만 지내는 교환학생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학교 근처 Airbnb를 따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혼자 Airbnb에서 지내기에는 월세 부담이 너무 커, UoA에 같이 파견가는 서울대학교 친구 두 명과 함께 방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Airbnb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한달에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하여, 1인당 170만원 정도를 부담하였습니다. 기숙사에 지내는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기숙사의 월세도 이와 엇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저렴한 월세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housing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주변 Apartment를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 가격으로 지낼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집을 알아보려면 일찍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저처럼 늦게까지 미루다가 housing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면 비싼 가격으로 지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UoA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수업료와 학생 보험, 학교 설비 이용비 등을 포함해 약 300만원 정도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과는 별개입니다.

추가로 만약 겨울 학기에 1학기동안 파견을 갈 경우, 기숙사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가을 학기에 간 것이라 제공을 못받은 것입니다.

### IV. 학업

수강 신청의 경우, UoA 측에서 교환학생 신청할 때 저희에게 희망하고자 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이때 UoA 학생 사이트(<https://studentcenter.arizona.edu/app/ui/dashboard>)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공하는 수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강 전 후로 약 2주일 간 기존에 신청해놓았던 강좌를 바꿀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UoA에서는 교환학생에게 Freshman에서 Sophomore 정도 수준의 수업만을 제공합니다. 그 위 수준의 수업은 시스템적으로 등록을 못하게끔 제한해놓았습니다. 때문에 전공 수업 말고 본인이 관심 갖는 교양 수업을 여러 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4개의 수업 총 12학점을 수강하였습니다. ECON 200, PSY 200, HPS 150C1, ASTR 206입니다. 이중 저는 ECON 200 수업을 가장 추천합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 경제학 수업을 듣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경험입니다. 이 수업의 교수님의 경우 기본적인 경제학 개념을 일상생활 상황과 엮어서 잘 설명해주시기에,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경제학 용어를 영어로 학습한다는 것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 수업들은 공통적으로, 서울대학교 강좌들과 비교했을 때 과제 비중이 높고 시험의 비중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ECON 200의 경우, 매 수업이 끝난 후 복습의 개념으로 묻는 가벼운 테스트 2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매주 빠짐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학기 말까지 제출해야 할 Report Essay가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의 시장을 하나 골라 그 시장의 최근 5년의 변동을 파악하고 분석해 5페이지 분량의 Essay를 써야 했습니다. 물론 시험도 학기 중에 4번 보지만, 이 4번의 시험 중 가장 낮은 점수는 자동 탈락되는 시스템이며, 여전히 시험의 총 비중은 한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가장 쉬운 방법이자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나서야 합니다. 저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했으며 교내 동아리에 인턴으로 지원해 동아리 활동도 하였습니다. 국제학생 프로그램(ISS,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은 국제학생들끼리 만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하이킹을 하거나, 평일 저녁에 함께 농구 경기를 보러간다거나, 금요일 저녁에 학교에서 파티를 여는 등 여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금방 영어로 대화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KASA라는 교내 동아리에서 홍보부원 및 이벤트 코디네이터로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KASA(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는 한국 문화와 역사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한국에 대해 소개해주는 동아리로, 간단한 발표와 주제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여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한국인인 만큼 외국인에게 소개하면 좋을 주제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봉어빵을 사먹는 문화를 소개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봉어빵을 직접 만들어 학생들에게 봉어빵을 판매하는 활동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봉어빵을 직접 만드는 데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었고 매우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었던 양을 전부 판매하는데 성공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추후 동아리 활동비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학생들에게 알리는데 힘썼고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최대한 찾아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V. 생활

미국에서 5개월정도 지내다보면, 자연스럽게 한식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갖가지 한식을 챙겨서 가는 것을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도 꽤 많은 종류의 한식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Walmart의 경우 신라면, 햇반, 불닭볶음면, 비비고 냉동식품 등 다양한 즉석식품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음식들 말고 정말 자기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적당한 용량으로 챙겨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물가는 대체로 한국보다 비쌉니다. 특히 외식을 할 경우, 같은 메뉴에 대해 한국보다 주로 1.5배 내지 2배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레스토랑 말고 패스트푸드의 경우는 그만큼의 정도로 가격차이가 심하지 않지만, 역시 한국보다 비쌉니다. 미국의 물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싸게 느껴질 때는 대형 마트나 식료품점을 갈 때뿐입니다. 과일, 채소, 유제품류는 특히 좀 싸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 Tucson의 경우, 대중교통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있진 않았습니다. 버스 노선이 몇몇 개 존재하지만, 서울처럼 짧은 배차간격으로 자주오진 않습니다. 괜히 미국, 특히 서부에서 차가 살기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Uber와 Lyft 시스템이 잘되어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택시와 같은 것인데, 가격은 조금 비싼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거나 파티를 하고 나올 경우, 버스가 끊기기에 주로 Lyft를 이용해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용 미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이상, 미국 은행을 이용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 Chase Bank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이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도와주니 무척 편했습니다. 미국 계좌를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나 생각해볼 때, 사실 크게 없습니다. Apple Pay 를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도일 겁니다. 저는 경험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계좌 개설이 큰 관심이 없다면 안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학교의 경우, 교내에 ATM 기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계좌로부터 달러로 돈을 뺐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여행하러 다니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히 서부 지역에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때문에 먼저 교환학생 가실 분들은 꼭 영문면허증을 따놓으시고 운전 하는 법을 숙달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차를 렌트하기 매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항에 가서 공항에 있는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업체에서 21살 이상의 국제 면허증과 신용카드를 갖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Enterprise, Hertz, Dolla.com 등 대부분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Sixt, Alamo 의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면 체크카드 사용을 허용합니다. 때문에 차를 빌리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분쟁과도 엮이기 싫다면, 한국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항에 가는 것 말고 자신의 위치한 곳에서 편리하게 차를 빌리고 싶다면 Turo 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렌터카 명목으로 등록해 유저들로 하여금 간편하게 차를 빌리게끔 해줍니다. 이 방식의 경우 21살이상의 국제 면허증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가격이 위에서 언급한 렌터카 업체에 비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접근성과 편의성에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여행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애리조나 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랜드 캐니언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협곡 위에서 트레일을 따라 쪽 걸으며 협곡의 전경을 위에서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 말로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시간의 연속성을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협곡 내부로 하이킹 해 캠핑을 했습니다. 이 캠핑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제공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꼭 한 번은 참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인연을 맺고 대화를 하면서 영어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랜드캐니언은 애리조나 주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위치해있어 실제로는 네바다 주에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관광하기 좋았던 도시는 세도나였습니다. 물론 피닉스가 애리조나의 주도지만, 피닉스는 너무 상업화된 느낌으로 관광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세도나는 자연 경관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붉은 돌로 이루어진 산악지형입니다. 세도나가 아니면 평생 볼 수 없는 자연들이 펼쳐져있으니 꼭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리조나 주 외에도 여러 주들로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우선 서부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여행지는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러스 가 있습니다. 이 중 라스베가스에서의 경험이 가장 강렬합니다. 학기 중에 여행 갈 시간이 꽤나 있으니, 친구들과 가능한 많은 서부 도시들을 같이 여행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부의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니, 학기 중에 긴 시간을 한번에 내긴 어려우니,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시카고,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마이애미를 가봤는데 이 중 시카고에서 경험이 가장 좋았습니다.

##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저는 교환학생으로 1 학기 동안 미국에 있었던 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여러 걱정들이 제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교환학생 예정자들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한국을 떠난다는 도전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막상가면,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무척 잘되어있어 저는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젊을 때, 해외를 경험했던 것이 나중에 제가 겪어나갈 일에 기본적인 밑거름으로 적용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에게 1 학기간 교환학생으로 생활할 기회를 준 서울대학교에게 감사합니다.